



환경부

# 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 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| 2022. 9. 29.(목) 12:00<br>(금요일 조간) | 배포 일시 | 2022. 9. 28.(수)        |
| 담당 부서 | 화학물질안전원<br>사고대응총괄과                | 책임자   | 연구관 이지호 (043-830-4166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| 연구사 임지영 (043-830-4167) |

## 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합리적으로 개선

### -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개정·시행 -

-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‘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’을 개정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- 이번 규정 개정은 유해화학물질의 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에서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완화해 작업 시 불편함을 개선했으며, 사고대비물질\* 별로 보호복 형식 등을 명확하게 구분했다.
  - \* 폭발 등 사고위험이 높은 화학물질로 질산암모늄 등 97종을 지정(2017.5.30. 개정)
-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규정 개정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현장을 조사하고 시민사회,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.
- 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에 따른 작업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취급자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.
-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△유해화학물질의 위험 노출이 적은 기타작업의 경우 보호장구 착용기준 완화, △보호복 형식 구분의 명확화, △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보호장구 비치 등이다.

-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노출이 적은 기타작업은 △사방이 막혀있는 지게차를 이용한 밀폐 용기 운반, △밀폐 시설 주변의 일상점검, △취급 시설을 순찰하는 보안경비 업무로 한정했으며, 기타작업을 할 때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대신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 보호장구 비치 또는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.

- 또한, 질산암모늄 등 97종의 사고대비물질별 보호복의 형식을 전신 또는 부분으로 구분하지 않고 3 또는 4형식, 5 또는 6형식\*으로 명확화했다.

\* 화학물질 차단 능력에 따라 구분된 보호복 형식(붙임3 참조)

- 이에 따라 사고대비물질별 보호복은 화학물질의 물리·화학적 특성에 따라 △3 또는 4형식(시안화수소 등 87종), △5 또는 6형식(질산암모늄 등 10종)에 맞춰 착용해야 한다.

-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규정 개정과 함께 보호장구 착용사례의 이해도를 높이고,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3차원 영상 프로그램\*을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(nics.go.kr)에 제공할 예정이다.

\* 가상공간에서 사용자가 다양한 작업 상황에 따라 착용하는 보호장구 종류를 3차원 영상과 음성기능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구현

- 또한 규정 개정 시행초기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작업 상황별\* 보호장구 착용사례를 삽화 형식으로 담은 ‘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안내서’도 제공한다.

\* 개방형 기기작업, 밀폐형 기기작업, 상·하차 원료이송작업, 보수작업, 누출물 및 폐기물 처리작업, 시험작업, 기타작업

- 이지호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연구관은 “이번 규정 개정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작업불편이 해소되고 동시에 취급자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”이라며, “산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개인보호장구 착용규정 주요 개정내용.  
2. 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안내서.  
3. 화학물질 보호복 종류.  
4. 질의응답. 끝.



## **① 개정 이유**

-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으로 인한 작업불편과 2차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현실적 어려움이 건의과제로 접수('20.8.18 일)됨에 따라, 관련 고시 개정 필요
- 유해화학물질 위험 노출이 적은 기타 작업의 경우 개인보호장구 착용 예외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보호장구 착용기준 현실화를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 **② 주요 개정 내용**

- (착용예외 확대) 유해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적은 기타작업의 경우 보호장구를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 비치 및 소지하도록 개선
  - 노출 위험이 적은 기타작업은 사방이 막혀있는 지게차를 이용한 밀폐용기 운반, 밀폐형 기기주변 또는 시설에 대한 일상점검 및 감독업무, 취급시설 순찰 등 보안경비 업무 시 해당
- (착용형식 명확화) 사고대비물질별 보호복의 전신 또는 부분보호복 구분을 삭제하고, 3또는4형식, 5또는6형식 보호복으로 명확화
- (용어 명확화) “보호장구의 비치”를 “사고대응을 위한 보호장구의 비치”로, 탱크로리 “이송”을 “운반·운송”으로 화관법 용어의 명확화



### 붙임 3

### 화학물질용 보호복 종류

| 형식  |            | 구분 기준  | 화학물질용 보호복 예시   |   |
|-----|------------|--|--|---|
| 1형식 | 1a형식       | 보호복 내부에 개방형 공기 호흡기와 같은 대기와 독립적인 호흡용 공기공급이 있는 가스 차단 보호복 |    |    |
|     | 1a형식 <긴급용> | 긴급용 1a 형식 보호복  |  |   |
|     | 1b형식       | 보호복 외부에 개방형 공기 호흡기와 같은 호흡용 공기 공급이 있는 가스 차단 보호복         |  |   |
|     | 1b형식 <긴급용> | 긴급용 1b 형식 보호복  |  |   |
|     | 1c형식       | 공기라인과 같은 양압의 호흡용 공기가 공급되는 가스 차단 보호복                    |  |   |
| 2형식 |            | 공기라인과 같은 양압의 호흡용 공기가 공급되는 가스 차단 보호복                    |  |   |
| 3형식 |            | 액체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4형식 |            | 분무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
| 5형식 |            | 분진 등과 같은 에어로졸에 대한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6형식 |            | 미스트에 대한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

|        |       |
|--------|-------|
| <긴급용>  | <일반용> |
| <반복사용> | <1회용> |
| <일체형>  | <분리형> |

**1. 유해화학물질 위험노출이 적은 기타 작업은 어떤 경우인가요?**

- 본 규정 [별표2]의 기타 작업 중 사방이 막혀있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밀폐용기를 운반하는 경우, 밀폐형 기기주변 또는 시설에 대한 일상점검 및 감독하는 경우, 취급시설 순찰 등 보안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입니다.

**2. 개정 고시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?**

- 발령 즉시 적용되며, 고시 시행은 '22년 9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.

**3.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어떤 종류인지?**

-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합니다. 다만, 본 규정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개인보호장구 종류를 고시하였으며, 그 외 유해화학물질은 고용노동부 '보호구 안전인증고시'에 따라 착용해야합니다.